

- 주요 뉴스: 우크라이나, 국가비상사태 선포.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
  -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경제 지표 고려 시 3월 금리인상이 적절
  - ECB, 역내 은행들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위험을 보고하도록 지시
  - 독일 3월 GfK 소비자신뢰지수, 3개월 만에 하락.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이 원인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우크라이나 우려 확산 고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
주가 하락[-1.8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5bp]
 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배경. 나스닥 지수는 5월 이후 최저  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0.3% 하락
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 
유로화가는 0.2% 하락, 엔화는 0.1% 상승
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이 원인  
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2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3.3원, -1.1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|    |      | 2/23일   | 2/22일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2/23일   | 2/22일   | 전일대비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4,222.5 | 4,304.8 | -1.84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1.99%   | 1.94%   | 5bp    |
|    | 유럽   | 453.86  | 455.12  | -0.28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0.23%   | 0.24%   | -2bp   |
|    | 중국   | 3,489.1 | 3,457.1 | 0.93% 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27bp    | 27bp    | 0bp    |
|    | 일본   | 휴장      | 26,450  | -    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54bp    | 54bp    | 0bp    |
|    | 한국   | 2,719.5 | 2,706.8 | 0.47% 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-       | 440     | -  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96.21   | 96.03   | 0.19%  |                 | VIX   | 31.02   | 28.81   | 7.67%  |
|    | 유로화  | 1.1307  | 1.1325  | -0.16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91.20   | 91.01   | 0.20%  |
|    | 엔화   | 115.01  | 115.08  | 0.06% 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46.1   | 451.1   | -1.11% |
|    | 위안화  | 6.3145  | 6.3264  | 0.19% 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909.0 | 1,898.6 | 0.55%  |
|    | 원화   | 1,193.6 | 1,192.7 | -0.08%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 
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우크라이나, 국가비상사태 선포.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

-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전국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했으며 의회도 이를 가결. 이에 전쟁을 대비한 예비군 징집이 시작되며, 군인과 경찰은 필요 시 검문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의 통행도 제한
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지만,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. 필요 시 무력 대결도 불사하며, 어려운 국제정세 상황에서 군비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. 외무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제재 가능성을 언급
-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 대상을 노드스트림2 관련 기업과 주요 인사들로 확대. EU의 돔프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넘어 침공할 경우 수출규제 등의 2번째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
- BTIG의 Isaac Boltansky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,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. Miller Tabak+의 Matt Maley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국제금융협회, '21년 전세계 부채는 303조달러로 사상 최대. 신흥국에서 급증

- 작년 부채증가 규모(10조달러)는 '20년(33조달러) 대비 감소. 부채증가의 80%는 신흥국 지역에서 발생. 다만 전세계 GDP 대비 부채비율은 주요국의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

### 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경제 지표 고려 시 3월 금리인상이 적절

- 데일리 총재는 고용이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언급. 향후 기준금리 및 대차대조표 조정은 경기 여건과 경제 지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첨언. 한편 금년 금리인상은 4회를 예상하며, 상황에 따라 4회 이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

### ■ JP모건, 세계 증시는 코로나 팬데믹 종료·중국 경기 회복 등으로 개선될 전망

- Marko Kolanovic 스트래티지스트는 향후에 해당 이유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. 이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진단

### ■ ECB, 역내 은행들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위험을 보고하도록 지시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역내 은행들은 해당 지시에 따라 유동성, 대출, 트레이딩 포지션, 사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 리스크 등을 평가. 스페인 중앙은행 데코스 총재는 금리인상 조건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충족될 수 있다고 진단
-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하여 ECB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
-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금년 여름 자산매입 종료 전에 금리인상이 시작될 수 있으며, 연말에 또 한 번의 인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

### ■ 독일 3월 Gfk 소비자신뢰지수, 3개월 만에 하락.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이 원인

- 해당 지수는 -8.1을 나타내 전월(-6.7) 대비 내렸으며, 이는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등에 기인. 다만 Gfk의 Golf Beurkl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조치들이 완화되고 있기에, 장기적 측면에서는 소비자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언급

### ■ 영란은행 정책위원, 인플레이션 전망 고려 시 소폭의 금리인상이 필요

- 텐레이로 위원은 30년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지만, 인플레이션 압력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.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의 핵심 원동력은 재정정책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
- 한편 베일리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

### ■ 뉴질랜드 중앙은행, 기준금리 0.25%p 인상.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배경

-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올리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1.00%로 결정하고, 자산매입프로그램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2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 및 ECB 슈나벨 이사 강연
- 미국 '21년 4/4분기 성장률(수정치), 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- 미국 1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, 1월 신규주택판매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우크라이나 위기, 미국 정부의 아시아 지역 정책 문제와도 연결 - Financial Times**  
(Ukraine crisis saddles Washington with Indo-Pacific dilemma)
  -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가 세계와 미국에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나,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의미해질 가능성. 미국 정부가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탈퇴 등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등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
  - 또한 미국은 무역 관련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아시아 지역에 요구하지만,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 지역 정책 신뢰는 훼손된 상태. 아울러 우크라이나 문제에 과도한 개입 시 아시아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질 소지
- **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, 연준의 시각과 달리 통화량이 주요 요인 - WSJ**  
(Jerome Powell Is Wrong. Printing Money Causes Inflation)
  - 연준 파월 의장은 '21년 2월 의회 증언에서 M2 통화량 지표가 경제에 큰 함의를 갖지 않는다고 발언. 또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한 작년 12월에도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40년 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
  - 그러나 역사적으로 통화량과 교환방정식을 토대로 추정된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유사했으며 '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관측. 연준의 파월 의장과 주요 인사들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통화량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
- **코로나 19 이후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, 지정학적 불안에 완충 역할 - 블룸버그**  
(Ukraine Crisis May Uncover Stealth Central Bank Put)
- **유럽,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공급원 확보는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 - Financial Times**  
(Can Europe survive without Russian gas?)
- **미국과 동맹국, 냉전시대보다 영향력이 커진 러시아-중국 관계에 대비할 필요 - WSJ**  
(Ukraine Crisis Kicks Off New Superpower Struggle Among U.S., Russia and China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[jsjeong@kcif.or.kr](mailto:jsjeong@kcif.or.kr)